

트랙선택 자격요건 신설, 컴공 소속 트랙만 해당

대학본부 “학생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23학년부터 컴퓨터공학부 소속 4개 트랙을 선택하려면 트랙기초 과목의 성적을 B 이상 받아야 한다. 대학본부는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1학기 수강신청 안내 및 학업이수 가이드(이하 학업이수 가이드)'를 공개했다. 이번 자격요건 신설 조치는 대학본부가 추진하는 '역량기반 트랙선택 자격요건 제도'의 일환으로, 컴퓨터공학부 소속 4개 트랙이 해당 제도의 첫 대상이 됐다.

컴퓨터공학부에는 ▲모바일소프트웨어 트랙 ▲빅데이터트랙 ▲디지털콘텐츠·가상현실트랙 ▲웹공학트랙 등이 소속돼 있다. 모바일소프트웨어트랙과 빅데이터트랙의 트랙기초 과목은 '컴퓨터프로그래밍', 디지털콘텐츠·가상현실트랙과 웹공학트랙의 트랙기초 과목은 '웹프로그래밍기초'다. 학업이수 가이드에 따르면 컴퓨터공학부의 4개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각 트랙기초 과목 성적을 B 이상 취득해야 한다. 이는 올해 신입학한 23학년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기존 재학생이 트랙변경 등을 진행할 경우 제외된다. 해당 내용은 학업이수 가이드뿐만 아니라 본교 홈페이지와 컴퓨터공학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안내된 바 있다.

2학기에 트랙기초 과목을 수강해 성적 공개보다 트랙선택이 먼저 이뤄지는 경우,

컴퓨터공학부 내 트랙에서 1지망, 외 트랙에서 2지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트랙선택이 진행된다. 1, 2트랙 모두 1지망이 컴퓨터공학부 내의 트랙이라면, 학생은 4개의 트랙을 골라야 한다. 김현미(학사지원팀) 팀장은 “트랙선택 기간은 2학기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이기에, 2학기에 트랙기초 과목을 수강하면서 컴퓨터공학부 소속 트랙을 선택하는 학생은 예비 트랙을 선택해야 한다”며 “성적이 발표되면 그에 맞춰 1지망 또는 2지망 트랙으로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이에 맞춰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서비스를 수정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역량기반 트랙선택 자격요건 제도는 학생이 전공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춘 후에 트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대학본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역량을 갖추지 않은 학생이 트랙을 선택한 이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성욱 교무처장은 “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도입한 것”이라며 “학생 스스로가 해당 트랙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점검하게끔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학본부가 역량기반 트랙선택 자격요건 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또 다른 효과는 '교육의 질 향상'이다. 역량을 갖춘 학생만을 대

상으로 전공 수업을 진행한다면, 수업 내 학생 간 편차가 줄어 교수자가 균일한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처장은 “기초 역량을 갖춘 학생으로만 이뤄진 강의실에서는 더 수준 높은 수업이 진행되기에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 학습에 역량이 부족한 학생이 발생한다는 사항은 2021년 10월 열린 '학사구조 고도화'를 기반으로 하는 '오고 싶은 한성대, 머물고 싶은 한성대' 구현 관련 토론회에서 거론됐다.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과제 수행 중 코칭', '트랙선택 자격시험 시행'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후 2022년 6월경 컴퓨터공학부 소속 교수진이 대학본부에 트랙선택 자격요건 신설을 요청했다. 당시 컴퓨터공학부장이었던 장재영(컴퓨터공학부) 교수는 “IT공과대학 소속 1학년 학생 대부분이 컴퓨터공학부에 소속된 트랙을 선택하고자 한다”며 “교원이나 공간 등 자원은 부족한데 학생은 늘어나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학부에서 먼저 트랙선택 자격요건을 두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처장은 “트랙기초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컴퓨터공학부 내 트랙을 선택하는 학생의 최대 비율이 31%였던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12월 '한성대학교 미래100년'을 위한 학사구조고도화 방안이 마련되며, 현

재의 역량기반 트랙선택 자격요건 제도가 구체화됐다. 해당 방안에는 트랙을 선택하려면 트랙기초 과목에서 B 이상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등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같은 달인 12월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어 올해 1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이 참석한 '학생대표 간담회'를 통해 학생대표에게 해당 사항이 알려졌다. 이후 대학본부가 각 트랙에 역량기반 트랙선택 자격요건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도입 접수를 받았으나, 컴퓨터공학부 소속 4개 트랙만 신청했다. 이에 ▲모바일소프트웨어트랙 ▲빅데이터트랙 ▲디지털콘텐츠·가상현실트랙 ▲웹공학트랙의 자격요건 신설이 2월 확정됐다.

자격요건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학생들이 트랙기초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컴퓨터공학부 소속 4개 트랙의 트랙기초 과목은 1, 2학기여름, 겨울 계절학기에 모두 개설된다. 또한 컴퓨터공학부 소속 4개 트랙은 교수학습센터와 함께 트랙기초 과목에서 수강할 내용과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설정했다. 성적평가 방식은 절대평가의 일종인 '성취평가'로, 컴퓨터공학부 소속 트랙의 2학년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역량을 학생이 성취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항찬(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트랙기초 과목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에 대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중간·기말고사를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로운 전공 선택에 제약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이 전해지기도 했다. 남기철(컴공 3) 컴퓨터공학부 학생회장은 “전공 선택 자율성이라는 특성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학생이 있었다”며 “트랙제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대학본부는 이와 같은 학생의 우려에 대해 '성공적인 트랙선택을 위한 조치'라는 답을 내놓았다. 또한 모집요강 등을 통해 트랙선택 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입학 이전부터 안내했기에, 23학년부터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된 데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처장은 “역량기반 트랙선택 자격요건 제도는 성공적인 트랙선택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학생이 전공을 학습할 준비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해당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선택하지 못한 학생 입장에서 당장에는 늦어 보여 답답할 수 있지만, 기초 학습 역량을 갖추고 천천히 학습하는 것이 결국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2023학년도 상반기 2차 대의원총회 마무리

2학기부터 학생회비 인상

감사 시행 세칙 개정

일부 학생자치기구 예산안 인준

'2023학년도 상반기 2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25일 진행됐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학생회비 인상 ▲감사 시행 세칙(이하 감사세칙) 개정 ▲일부 학생자치기구 예산안 인준이었다. 모든 안건은 재적 대의원 13명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학생회비는 20% 인상돼 2023학년도 2학기부터 1만 2천 원이 된다. 학생회칙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학생회비 납부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책정한 금액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운위는 4월 말 변동 납부액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지난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총회에서 학생회비 인상을 확정했다. 김승희(IT융합 4) 총학생회장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기존 학생회비 1만 원으로 단위별 학생회의 운영 및 행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회비 납부자에게 총학생회와 각 단위가 각종 행사와 혜택으로 확실하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감사세칙도 개정되면서 감사자료의 보관·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신설됐다.

감사자료란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자치기구가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로, ▲당해 사업계획서 ▲사업별 영수증 총 ▲견적서 등이 포함된다. 개정 감사세칙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자료는 감사 완료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존되며, 중앙감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된다. 제38조에서는 감사자료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문서 출입 대장을 작성하고 총대의원회 소속 국원을 대동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같은 조항에서 외부 반출은 불가한 것으로 정했다. 광동민(사회과학 4) 총대의원회 의장은 “서울 소재 타 대학은 감사 관련 문서 보존과 열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비해, 본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매년 다른 방식으로 감사자료를 보관해 왔다”고 말했다. 보존 기간이 5년인 이유에 대해서는 “1학년 때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학과 학생회비의 특성상 사용 내역을 볼 수 있는 기간을 4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휴학 등으로 4년을 초과해 재학하는 학우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1년의 기한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감사세칙은 5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23년도 상반기 감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감사세칙은 본교 홈페이지 내 낙산의 메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광 의장은 “학우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토대로

학우들이 감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4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학생회의 상반기 예산안 인준도 이뤄졌다. 제37대 동연 'ReNewAll'은 예산으로 451,540원을 인준받았다. 이는 ▲대동제 동아리의 날 스태프 투어 ▲대동제 뽕이 이벤트 ▲대동제 동아리 공연 홍보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제27대 사과대 학생회 '사월'의 예산으로는 총 1,121,120원이 승인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프린트 사업 ▲짜선배 짝배 프로그램 ▲대동제 이벤트 ▲사회과학대학 체전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있다.

제2대 창의대 학생회 '담아'의 예산은 총 753,200원이다. 세부적으로 ▲성년의날 이벤트 당첨자 ▲창용멘토링 지원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자보 ▲프린트 대여 ▲학사달력 인쇄 ▲축제 물품/굿즈 배포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광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총회에 대의원과 상임위원이 전원 출석해 감사할 따름”이라며 “올해 대의원 수가 13명인데, 학교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적은 수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에 추가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건희 기자 enqnk@hansung.ac.kr

학사구조개편, 학과(부) 신설

학사구조개편 결과가 지난 17일 e-class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됐다. 이번 학사구조개편에는 ▲학과(부) 신설 ▲모집단위 정원 조정 ▲트랙 모집중지 및 신설, 변경 ▲학부·트랙 명칭변경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창의융합대학에 '미래모빌리티학과(주)'가 신설된다. 미래모빌리티학과(주)는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를 학습할 수 있는 특성화 학과다. 주간 단독 40명의 정원이며, 하반기 예정된 2024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

미래플러스대학(이하 미플대)에는 '미래인재학부(야)'가 신설된다. 미래인재학부(야)는 미플대 내에서 '자율전공학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미래인재학부(야) 학생은 미플대 소속 5개 학과를 탐색함과 더불어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등 재직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신설 학부는 야간 단독 10명 정원이며, 오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 조문석 기획조정처장은 “미플대에 입학하는 학습자 중 일부는 어떤 학습이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며 “이직을 희망하는 학습자가 입학해 향후 진로를 탐색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수요도 높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학사 단위가 필요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미래인재학부(야)의 모집 정원 확보를 위해 타 학과(부)의 정원을 조정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감축이 결정된 뷰티디자인학과(야) 정원 8명과 타 학과(부)의 야간 2명 정원으로 10명의 정원을 만들었다. 뷰티디자인학과(야)의 경우, 「미래플러스대학 소속 학과 평가 시행세칙」에 따라 8명 정원 감축이 학부 신설 이전에 결정돼 있었다. 해당 시행세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유지총원율'이 2년 연속 80% 미만인 미플대 소속 학과는 정원을 감축한다. 유지총원율은 신입생 총원율과 재학유지율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여기에 글로벌패션산업학부(야) 정원 1명과 호텔외식경영학과(야) 정원 1명을 감축해, 미래인재학부(야) 정원 10명을 완성했다. 단, 글로벌패션산업학부(야) 정원 1명을 줄이는 대신, 글로벌패션산업학부(주) 정원 1명을 늘리고 상상력인재학부(주) 정원을 1명 줄인다. 모든 모집단위 정원 조정은 하반기에 있을 2024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적용된다.

학과(부) 신설 및 모집단위 정원 조정 이외에도, 일부 트랙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트랙 모집중지와 신설, 변경, 그리고 명칭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학부 명칭변경이 확정되기도 했다.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트랙 구조조정 및 학부 명칭변경도 시행된다

‘영미문화콘텐츠트랙(야)’과 ‘금융·데이터 분석트랙(야)’은 모집중지되고, ‘영미문화콘텐츠트랙(야)’과 ‘경제금융투자트랙(야)’이 신설된다. 또한 영미문화콘텐츠트랙(주)과 금융·데이터분석트랙(주)은 ‘영미문화콘텐츠트랙(주)’과 ‘경제금융투자트랙(주)’으로 변경된다. 영미문화콘텐츠트랙(야)과 금융·데이터분석트랙(야)은 ‘2021학년도 1학기 트랙선택’부터 2년 연속으로 트랙선택 학생 수가 10명에 미치지 못해 폐지 대상에 올랐다. 현재 「트랙 구조조정 및 시행세칙」으로 개정된, 그때 당시 관련 규정인 「트랙 신설, 변경, 통합, 폐지에 관한 시행세칙」 제 5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의 경우 트랙을 선택한 학생 수가 2년 연속 10명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트랙은 폐지된다. 작년 9월과 10월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를 각각 거쳐 두 트랙의 폐지가 확정됐다. 이후 작년 12월 영미문화콘텐츠트랙(야)과 경제금융투자트랙(야)의 신설과 영미문화콘텐츠트랙(주), 금융·데이터분석트랙(주)이 각각 영미문화콘텐츠트랙(주)과 경제금융투자트랙(주)으로 변경되는 조치가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 심의 후 확정됐다. 모집중지와 신

설, 변경은 모두 ‘2024학년도 1학기 트랙선택’부터 적용된다. 조문석 기획조정처장은 “신설되는 트랙의 교육과정과 기존 트랙의 교육과정과 차별성이 있는지, 사회산업 수요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한 후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은(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영미문화콘텐츠트랙 주임교수는 “교육과정상 신설되는 과목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과목을 승계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면서도 “콘텐츠 분야 학습에 대한 학생 수요가 많기에, 그 분야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용예원(인문 3) 영미문화콘텐츠트랙 학생회장은 “트랙 구조조정에 대한 기존 소속 학생들의 뚜렷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금융·데이터분석트랙 주임교수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황수미(사회과학 3) 금융·데이터분석트랙 학생회장은 “경제금융투자트랙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투자’와 관련된 과목도 신규로 개설된다면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기계전자공학부의 정보시스템트랙(주·

야)과 IT융합공학부의 사이버보안트랙(주·야)도 모집중지된다. 두 트랙은 융합보안학과 신설에 따른 모집중지로, 작년 6월과 7월 각각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논의 절차를 거쳤다. 융합보안학과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신입생을 선발했다. 따라서 두 트랙의 모집중지 조치는 ‘2024학년도 1학기 트랙선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3학년도 1학기 트랙선택’에서는 정보시스템트랙(주·야)과 사이버보안트랙(주·야)의 선택이 가능했다. 조 처장은 “제대 후 복학한 학생 등이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말 진행될 트랙선택부터 모집중지하는 것이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기원(융합보안학과) 기계전자공학부장은 “현재 정보시스템트랙 소속 학생들의 전공 과목 수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주(기계전자 3) 기계전자공학부 부학생회장은 “모집중지 트랙 소속의 휴학생 및 미수강·재수강 인원을 파악해 최대한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IT융합공학부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가은(IT융합 3) IT융합공학부 학생회장은 “모집중지로 인해 트랙 소속 학생 규모가 축소되고 일부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무리가 생길 경우, 소속 학생들이 아쉬움을 가질 부분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IT공과대학의 스마트경영공학부는 ‘산업시스템공학부’로의 명칭변경이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된다. 해당 건은 스마트경영공학부에서 먼저 명칭변경을 요청하자 대학본부가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복(스마트경영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장은 “스마트경영공학부라는 이름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학부인지 정확히 전달하기에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이름”이라며 “학부 내 트랙들이 산업공학에 대해 배우는 트랙이기에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전했다. 황세윤(스마트 3) 스마트경영공학부 학생회장 또한 “변경되는 산업시스템공학부가 어떤 학문을 배우는지 더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이라고 말했다. 도서관정보문화트랙(주·야)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지식정보문화트랙(주·야)’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 또한 도서관정보문

화트랙에서 먼저 대학본부에 명칭변경을 요청했다. 박성재(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도서관정보문화트랙 주임교수는 “정보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변경시켜왔는데, 도서관정보문화트랙이라는 명칭이 이 변화를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변경 논의가 시작됐다”며 “트랙 학생회 측에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지식정보문화트랙 명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남(인문 3) 도서관정보문화트랙 학생회장은 “도서관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식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트랙으로서, 넓은 이미지로 학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라 선호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사구조개편에 대해 조 처장은 “학생이 자신의 역량이나 적성에 맞게 전공을 선택하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대학본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했다.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미비, 전부 개선 예정



사진: 신지원 기자

▲상상관 1층 여자 장애인화장실의 비상벨

장애인화장실의 비상용 벨(이하 비상벨) 미설치 및 일부 규격 미준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본교 장애인화장실 26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자 장애인화장실에는 전부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으나 남자 장애인화장실 13곳 중 9곳은 미설치 상태였다. 또한, 여자 장애인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중 일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높이보다 높게 설치돼 있음이 확인됐다. 대학본부는 학내 장애인화장실을 전수조사한 후 모두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화장실에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상벨을 갖춰야 한다. 해당 비상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의 바닥으로부터 0.6~0.9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본교 또한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여자 장애인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 비상벨을 누르면 ADT캡스 종합상황실로 연결된다. 하지만 연구관 1층 상상파크 내부와 상상관 지하 1·1·7층에 각각 위치한 남자 장애인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남자 장애인화장실에서는 비상벨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정순선(총무인사팀) 팀장은 “남자 장애인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으로부터 0.6~0.9m 사이에 설치해

야 한다는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비상벨 2개도 발견됐다. 지선관 1층 여자 장애인화장실의 비상벨은 약 1.1m, 공학관 B동 1층 여자 장애인화장실의 비상벨은 약 1.2m 높이에 설치돼 있다. 정 팀장은 “해당 건물들을 지을 당시에는 관련 기준이 부재해 발생한 문제”라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데 문제 없도록, 현재 법령에 맞춰 위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장애인화장실 비상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비상벨이 미설치된 곳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된 곳을 전부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팀장은 “전수조사와 시설 공사 관련 부서 및 예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9월까지의 문제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여전한 대동제 쓰레기 꼬리표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36분경, 진리관 1층이다. 대동제가 끝난 후 종이 상자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가 진리관 입구를 막아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쌓였다. 작년 축제에도 발생한 쓰레기 배출 문제가 올해도 반복됐다. 일부 타 대학에서는 쓰레기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화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가하고 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부스 참여형 트랙설명회 성료

‘전공트랙 진로 디자인데이’가 지난 18일 낙산관에서 열렸다. 전공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본 행사는 각 학생들이 트랙·학과(부) 등에서 운영하는 부스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행사와 관련한 동영상 콘텐츠 공모전도 함께 진행돼 우수팀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50개 부스 중 관심 있는 곳을 선택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다. 트랙·학과(부) 부스에서는 교수진

등과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전공을 선택하면 학습할 수 있는 내용과 졸업 후 진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외에도 학사지원팀과 진로취업지원팀 등이 운영하는 트랙 선택 및 진로·취업 관련 상담 부스가 존재했다. 행사에 참여한 서기훈(사회과학 1) 학생은 “타 단과대학의 트랙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용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스 방문 수에 따라 상품 지급이 이뤄졌다. ▲크리에이티브인

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플러스트대학에서 부스를 5곳 이상 방문한 학생 중 가장 많이 방문한 학생을 각 1명씩 뽑아, 총 6명에게 ‘보스 QC45 헤드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스를 4개 이상 방문한 학생 중 1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E-Gift Card 3만 원권’을 증정하기도 했다. 비교과 포인트도 지급됐는데, 1개 부스 방문 시 5pt를 제공해 1인당 최대 20pt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본 행사와 관련한 ‘동영상 and V-log 콘텐츠 공모전’이 함께 진행됐다. 전공트랙 진로 디자인데이와 관련한 동영상 또는 V-log 콘텐츠를 접수 받아 우수작을 선발하는 공모전이다. 전공트랙 진로 디자인데이와의 연관성은 갖춰야 하나, 콘텐츠의 성격에는 제한이 없다. 수상 결과는 6월 30일 이후 발표 예정이며 1등(1팀)은 50만 원, 2등(2팀)은 30만 원, 3등(3팀)은 15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사진: 황서연 기자

▲지난 18일 낙산관 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공트랙 진로 디자인데이’

이번 행사에 대해 박태민(학생장학팀) 부팀장은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전공트랙 선택과 진로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성 기자 metoor11@hansung.ac.kr

제18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 개최

지난 5월 18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2023년 제18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가 열렸다.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본 행사에는 본교 재학생 156명이 참여했다. 이후 본 대회 10명의 수상자를 대상으로 6월 2일 상상관 9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 또한 진행될 바가 있다. 이번 글쓰기 대회 주제는 ▲한일관계 속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 ▲동물원 보호를 위한 동물원 환경의 개선 방안 제시 ▲삶의 태도 측면에서 나의 관점 제시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는 세 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심사는 사고와표현과정 소속 교수진과 연구원들이 참여했으며, ▲표현력 ▲이해력 ▲논리력 ▲비판력 ▲구상력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었다.



▲이창원 총장(좌),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수아(컴공 3)(우)

시상은 ▲최우수상(1명) 50만 원 ▲우수상(4명) 20만 원 ▲장려상(5명) 10만 원으로 이뤄졌다. 비교과 포인트는 순위에 따라 60pt, 50pt, 40pt가 차등 지급됐다. 그 외에도 대회에 참가한 나머지 학생은 비교과 포인트를 20pt씩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수아(컴공 3) 학생은 “대회에 참여하면서 여러 시사 상식에 대해 배우고 생각할 수 있었다”며 “평소 독후감을 비롯한 꾸준한 글쓰기와 독서습관이 수상에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은미(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대학생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글쓰기 능력과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글쓰기의 좋은 영향력을 활용해 사회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학사제도 만족도 조사, 어떤 결과 도출됐나

총학 “유지 혹은 발전되도록, 개선이 필요한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노력할 것”

제38대 총학생회 ‘이음’이 본교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2023학년도 1학기 학사제도 관련 재학생 설문조사(이하 재학생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재학생 설문조사는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구글폼으로 진행됐고,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6,863명 중 4,525명이 참여했다. 문항은 ▲교과목 유형 선호도 ▲수업운영 선호도 ▲대면수업 재개에 따른 학교생활 어려움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바라는 점 ▲트랙제 만족도 등으로 이뤄졌다.

재학생과 더불어 교수진의 의견도 파악하기 위해, 본지에서 본교 전임교수진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1학기 학사제도 관련 교수 만족도 조사(이하 교수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구글폼으로 진행된 교수 만족도 조사에는 41명의 교수가 응답했다. 문항은 ▲교과목 유형 선호도 ▲수업운영 선호도 ▲트랙제 만족도 등으로 구성됐다.

재학생 설문조사의 교과목 유형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서 ‘강의중심 일반 교과목’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학생은 우리대학의 다음 교과목 유형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선호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강의중심 일반 교과목(41%)’, ‘실형실기실습 교과목(36.2%)’, ‘문제중심학습 교과목(16.6%)’,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6%)’, ‘기타(0.2%)’ 순으로 응답이 남겨졌다. 김지웅(사회과학 4) 학생은 “강의중심 일반 교과목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 다음, 팀 프로젝트 등 활동중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이지우(매선 3) 학생은 “디자인대학 소속 전공의 특성상 몸에 익힐 수 있는 실습 위주의 수업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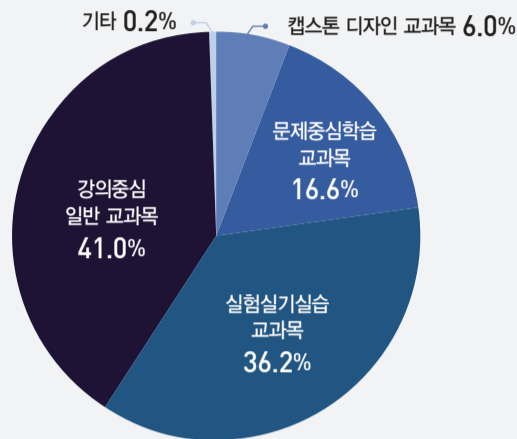
한편, 교수 만족도 조사의 ‘교수님께서서는 본교 교과목 유형 중에서 가장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는 ‘문제중심학습 교과목(31.7%)’,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24.4%)’, ‘강의중심 일반 교과목(24.4%)’, ‘실형실기실습 교과목(17.1%)’, ‘기타(2.4%)’의 결과가 나왔다. 가장 많은 교수가 선택한 문제중심학습 교과목은 교수자가 과제 또는 문제를 제공하면 이에 대한 학생 간 협동 및 피드백을 진행하고, 교수자 또한 학생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업방식이다. 백성준(사회과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과제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교수자가 모두 볼 수 있다”며 “학생들의 이해도 파악에 용이하다”고 말했다.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 만족했다. 해당 교과목은 1~2학년 동안 배운 전공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며 실무능력을 키우는 교과목을 말한다. ‘학생은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등과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과목이 사회 및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39.9%)’, ‘매우 도움이 된다(13.1%)’의 응답이 기록돼, 전체 응답자의 53%가 긍정적 의견을 표했다. ‘보통이다(28.9%)’, ‘수강 경험이 없다(14.4%)’, ‘도움이 되지 않는다(2.7%)’,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1%)’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이 학생은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기대치가 다른 수업보다 높다 보니 강도 높게 학습할 수 있어 실력 상승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교수진 또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실 효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교수 만족도 조사에서, ‘교수님께서서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등과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과목이 학생들이 사회산업현장을 이해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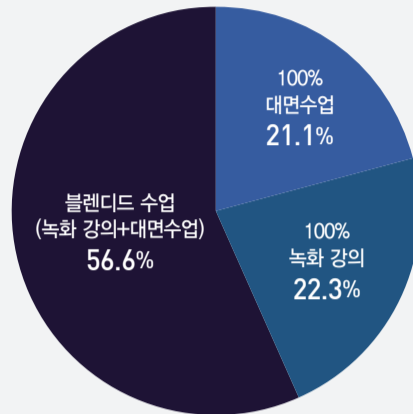
2023학년도 1학기 학사제도 관련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

Q. 학생은 우리대학의 다음 교과목 유형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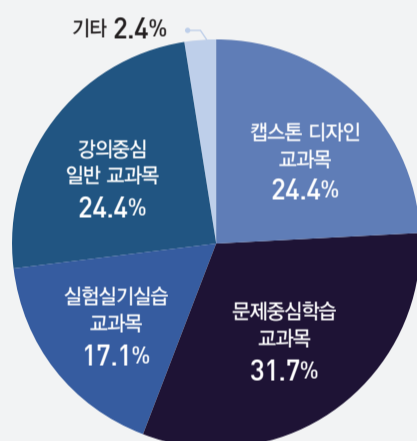
*본 설문문의 표본은 본교 재학생 4,525명입니다.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Q. 학생은 우리대학의 다음 수업운영 유형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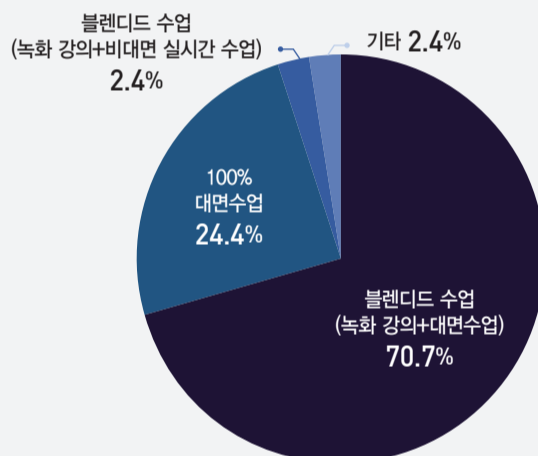
2023학년도 1학기 학사제도 관련 교수 만족도 조사 결과

Q. 교수님께서서는 본교의 교과목 유형 중에서 가장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설문문의 표본은 본교 전임교수 41명입니다.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Q. 교수님께서서는 본교의 수업 운영 유형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48.8%)’, ‘도움이 된다(31.7%)’는 응답이 기록됐다. ‘보통이다(19.5%)’ 의견은 그 뒤를 이었다. 이종복(기계전자공학부) 교수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통해 취업 후에 수행할 일을 미리 연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icro Degree(이하 MD) 과정’은 재학생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으나, 교수진 대부분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MD 과정이란 사회 수요에 기반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융합교육과정으로, ‘AI전문과정’, ‘창업&프랜차이즈 아카데미’ 등이 있다. 재학생 설문조사의 ‘학생은 특정 주제에 집중한 9학점 단위의 교육과정인 MD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MD는 처음 들어보는 명칭이다(61%)’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MD라는 명칭을 들어본 적은 있다(28.3%)’, ‘MD를 알고 있고 MD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다(7.2%)’, ‘이미 MD 교과목을 수강했거나 현재 MD 교과목을 수강 중이다(3.6%)’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학생과 달리 교수진 다수는 MD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학생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교수 만족도 조사에서는 ‘도움이 된다(43.9%)’, ‘매우 도움이 된다(26.8%)’, ‘보통이다(24.4%)’, ‘도움이 되지 않는다(4.9%)’ 순으로 기록됐다. 김현주(호텔외식경영학과) 교수는 “전공 내에서 학문의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MD 과정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학생 설문조사에서 ‘학생은 우리대학

의 수업운영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선호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블렌디드 수업(녹화 강의+대면수업)(56.6%)’, ‘100% 녹화 강의(22.3%)’, ‘100% 대면수업(21.1%)’ 순으로 나타났다. 최성암(사회과학 3) 학생은 “녹화 강의를 다시 돌려볼 수 있어 복습할 때 유용하다”며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선호 의견을 남겼다. 교수의 의견 또한 학생과 유사했다. 교수 만족도 조사에서 ‘블렌디드 수업(녹화 강의+대면수업)(70.7%)’, ‘100% 대면수업(24.4%)’, ‘블렌디드 수업(녹화 강의+비대면 실시간 수업)(2.4%)’의 응답이 도출됐다. ‘교과목 특성에 따라 수업운영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2.4%)’는 기타 의견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대면수업만 진행하면 학생이 어려운 내용을 학습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녹화 강의는 학생들이 어려운 내용을 반복해서 볼 수 있어 용이하다”고 밝혔다.

교수·학생의 블렌디드 수업 선호 의견에 대해 김현미(학사지원팀) 팀장은 “다음 학기에도 구성원이 가장 선호하는 블렌디드 수업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학생 설문조사에서 ‘학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대면수업 재개에 따른 전면 등교로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보통이다(39.4%)’, ‘아니다(28.9%)’, ‘매우 아니다(15.9%)’, ‘그렇다(11.8%)’, ‘매우 그렇다(4%)’라고 답변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학생 717명은 ‘장시간 통학 부담(60.7%)’, ‘대면수업에 대한 부담(10.6%)’, ‘성적평가 방식 변화에 따른 학업 부담(9.3%)’, ‘아라바이트(또는 직장) 시간 조정 어려움(9.3%)’, ‘교우관계 어려움(7.9%)’, ‘기타

(2.1%)’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앞선 문항에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이하 학교생활 만족자) 3,808명에게 ‘학생이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바라는 점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라고 묻은 결과, ‘스쿨버스 운영 확대(42%)’ 응답이 가장 많이 내놓았고, ‘학생식당 확대 운영(16.8%)’이 뒤를 이었다. 일부 학생은 주판식 문항을 통해 ▲학생식당 메뉴 확충 ▲아간 학생을 위한 학생식당 운영 시간 확대 ▲비건을 위한 메뉴 신설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정순선(총무인사팀) 팀장은 “현재 운행 중인 스쿨버스는 2대로 창신역 방향으로의 운행 등 확대는 어려우나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학생식당 운영시간과 메뉴의 다양화는 운영체제와 협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트랙제 관련 의견을 묻는 문항 또한 존재했다. 응답자 절반 가량이 트랙제에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생 설문조사의 ‘학생은 입학 이후 전공트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우리대학 트랙제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학교생활 만족자는 ‘만족(33.3%)’, ‘매우 만족(10.9%)’, ‘보통(39.5%)’, ‘불만족(11.8%)’, ‘매우 불만족(4.5%)’ 순으로 답했다. 또한 앞선 문항에서 대면수업에 따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만족(30.1%)’, ‘매우 만족(9.2%)’, ‘보통(36.3%)’, ‘불만족(15.5%)’, ‘매우 불만족(8.9%)’ 등의 의견을 남겼다. 김 학생은 “트랙제를 통해 다른 단과대학 소속 트랙을 선택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전했다. 교수진 또한 대부분 트랙제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교수님께서서는 본교 트랙제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

십니까?’라는 교수 만족도 조사 질문에 ‘만족(34.1%)’, ‘매우 만족(26.8%)’, ‘보통(17.1%)’, ‘매우 불만족(17.1%)’, ‘불만족(4.9%)’ 응답이 도출됐다. 이 교수는 “전공을 가리지 않고 신입생을 선발한 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트랙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트랙제에 대한 개선 의견도 있었다. 1, 2트랙이 각각 다른 학부에 속한 이 학생은 “배우는 내용이 달라 깊이 있는 전공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백 교수는 “1, 2트랙이 연계되지 않은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진로를 잘 찾아가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트랙제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트랙제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김 팀장은 “트랙제의 핵심은 사회산업 수요가 유망한 직무 중심의 트랙을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생이 스스로 다양한 전공 이수를 디자인해보고 그에 따라 학업을 설계해야 하는 자기주도성이 중요한 학사제도”라고 강조했다.

‘재학생이 자율적으로 전공트랙을 선택하는 트랙제는 귀 학생이 본교에 지원 및 입학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습니까?’라는 재학생 설문조사의 질문에 학교생활 만족자의 경우 ‘영향을 주지 않았다(20.9%)’,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14.4%)’로 35.4%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영향을 줬다고 답한 비율은 64.6%였으며, ‘보통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34.6%)’, ‘영향을 주었다(22.5%)’, ‘매우 영향을 주었다(7.6%)’가 그것이다. 학교생활 어려움 호소자 중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21.6%)’,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20.2%)’로 41.8%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통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30.3%)’, ‘영향을 주었다(18.5%)’, ‘매우 영향을 주었다(9.3%)’의 응답이 이어지며, 영향을 줬다고 답한 비율은 58.1%였다.

‘학생은 사회·산업의 변화에 따라 전공트랙을 선택 및 변경할 수 있는 트랙제가 귀 학생의 취업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재학생 설문조사 질문도 있었다. 학교생활 만족자 중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37.9%)’,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9.2%)’로 47.1%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보통 정도로 도움이 될 것이다(42.8%)’,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7.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2.8%)’의 응답이 이어졌다. 학교생활 어려움 호소자 중에서는 38.5%의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보통 정도로 도움이 될 것이다(41.7%)’, ‘도움이 될 것이다(29.4%)’,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13.2%)’,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9.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6.6%)’의 응답이 기록됐다. 김 학생은 “전공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지원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도 늘어난다”고 전했다. ‘교수님께서서는 트랙제가 학생의 향후 진로(취·창업, 대학원 진학 등)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교수 만족도 조사 질문도 ‘도움이 된다(34.1%)’, ‘매우 도움이 된다(31.7%)’가 기록되며, 대다수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보통이다(19.5%)’, ‘도움이 되지 않는다(7.3%)’,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7.3%)’ 응답이 뒤를 이었다.

재학생 설문조사를 기획한 김승희(IT융합 4) 총학생회장은 “원활하게 운영되는 학사제도 속에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박건희 기자 engnk@hansung.ac.kr

빛나기 전 빛부터 내는 청년들

빛 감당 어려운 청년 증가 사회구조적으로 바라봐야 사후 대신 사전 조치 필요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30대 이하 '다중채무자'는 141만 9천 명이다. 2021년 대비 6만 5천 명이 증가한 수치로 이들의 대출 잔액은 157조 4천억 규모다. 여기서 다중채무자란 3개 이상의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사람들로, 빚을 빚으로 막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2022년 '취약차주'에 속하는 126만 명 중 36.5%에 달하는 46만 명도 30대 이하 청년이었다. 취약차주는 1~10등급으로 구성된 신용등급 중 7~10등급인 저신용이거나 소득이 하위 30%의 저소득 상태인 다중채무자를 뜻한다. 청년들의 부채가 악성부채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민환(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20·30대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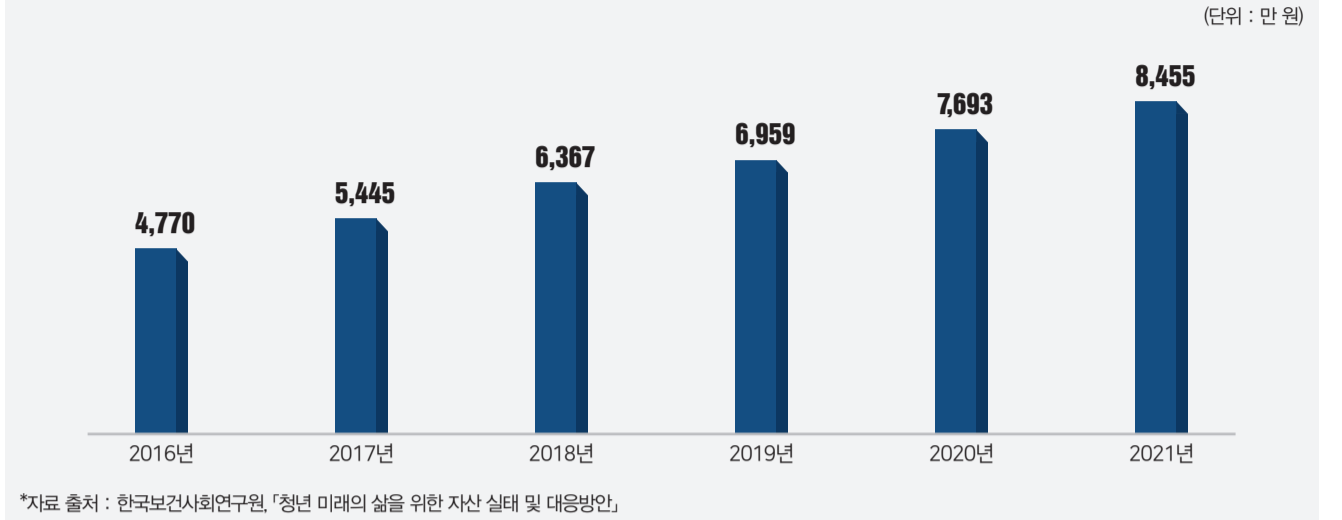
특히 취약차주들은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할 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규제되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가 높지만, 대출의 장벽이 낮아 청년들이 이용하기에 비교적 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진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년 상반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의

35%인 14조 7,532억을 30대 이하 청년들이 차지했다. 이필상(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처음에는 제1금융권을 이용하다가 빚을 갚기 어려워지면, 저축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 여기서도 대출이 어려워지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심한 경우 금리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채를 쓰게 돼 삶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부채의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측면과 관련이 크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다. 부채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등과 연결 지어 봐야 한다는 의미다. 백승훈(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상임이사는 "청년 부채의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한다. 흔히 생각하는 투자나 여행, 사치 등의 요인보다는 생활비, 교육비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청년 부채 요인으로 더 많이 꼽힌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교수는 "청년 부채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필요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당시 불었던 일명 '빚투', '영끌' 등의 청년 투자 열풍마저도 사회적 문제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주거 마련에 있어 근로소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투자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에 의하면, 2016년 4,770만 원이던 청년가구주의 부채는 2021년 8,455만 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추가로 2021년 청년가구주의 평균 부채 잔액 중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가 5,820만 원으

만 19~39세 청년가구주의 총 부채 잔액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업·투자 용도의 부채는 16.5%인 1,398만 원이었다. 백 상임이사는 "청년들의 투자 열풍에 우리 사회의 책임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근로소득 증가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실질임금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체감되는 등의 사회적 상황이 불안한 청년들을 투자에 열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문제도 청년 부채의 원인에서 빼놓을 수 없다. 청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연결된다. 부채 상환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구직 기간을 줄여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로 향한다는 것이다. 주세연(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은 "부채 상환 부담은 장기적인 직업 선택을 가로막는다. 당장의 부채로 인해 직업훈련 등의 다른 기회를 선택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은 채무를 빠르게 상환하고 싶어 하

는 쪽으로 선택하지만, 이는 청년들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결국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거나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 부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에서도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300% 이상인 청년가구주의 비율은 2012년 8.37%에서 2021년 21.75%로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강인수(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은 자기가 가진 자산이나 소득보다 부채가 많아 부채의 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년 부채의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부채 원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 차원의 청년 부채 실태조사는 2017년 이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청년들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센터장은 "청년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원인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부채의 발생 원인을 세밀하게 확인해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청년들이 부채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부채가 개인적 영역의 문제라고 인식되는 현 상황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의해 채무자의 상환조건을 변경해 주는 '채무조정 제도' 등을 망설이게 하고, 연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주 센터장은 "채무조정 제도는 사회가 합의해 만든 제도인데, 사회에 주홍 글씨가 박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특임교수는 "빚을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숨기면 숨길수록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첨언했다.

금융 관련 교육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핀테크(FinTech)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게 대출이 가능해졌으나 많은 청년이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이하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의식구조인 '금융태도'에 있어 10명 중 3명만이 최소목표점수를 달성했다. 또한 조사 응답자 중 청년층의 33.7%만이 '금융·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백 상임이사는 "사회구성원을 위한 공교육에서 금융 관련 교육이 부족해 민간단체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청년 부채 문제를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실제로 금리가 인상될 때 청년의 경우 부채가 많을수록,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소비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일하고 소비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백 상임이사

는 "청년 부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재기하도록 돕고,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황 파악 및 정책 결정, 상담을 위한 전문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년 문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에 하나의 기관에서 여러 기관의 자료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또한 현재 상담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기 관련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강 교수는 "가계부채의 총액만 살펴볼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빚이 많은지, 어떠한 부분이 취약한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 센터장은 "현재는 상담 시간이 짧기에 충분히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채무에 대한 어려움을 언제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나아가서는 악성 부채에 빠진 청년들의 부채를 먼저 해결하지는 방안이 제시된다. 정부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장기 분할 대출로 변경해 주자는 것이다.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학업 혹은 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발상이다. 이 특임교수는 "정부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 분할 대출로 전환한다면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 부채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도 요구된다. 부채가 단지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것도, 오로지 개인의 문제도 아니라는 의미다. 백 상임이사는 "청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개인의 부채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이며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 관련 교육 또한 초·중등 교육 과정에 금융 관련 과목을 늘려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이후 사회에 나온 청년들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이해력 조사에서도 금융·경제 교육 수강 경험자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금융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금융교육에 있어서는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투자보다는 자산과 부채의 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기 전에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강 교수는 "사전에 연체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 주거 문제 등에 대한 청년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기현 기자 kimgihun30@gmail.com

‘마의 15시간’ 넘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여러 구인 공고를 들여다보면, 일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를 통상 '초단시간 노동'이라고 부른다. 즉, 초단시간 노동자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뜻한다. 이들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근무한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에서 소외된다.

과거 특수한 고용형태였던 초단시간 노동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면서 현재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올해 4월 기준 153만 4천여 명으로 2020년 4월 109만 3천여 명과 비교하면 3년 새 약 40% 증가했다. 연령별로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 폭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컸고 2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6일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주관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초단시간 노동자는 2000년에서 2021년에 이르기까지 17만 4천여 명 증가했다.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의 상당 부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와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통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때, 주휴수당이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연차 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근로를 한 것으로 임금을 인정해주고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뿐만 아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계약 해지까지의 근무기간 기준으로 1년 단위 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과 상이한 대목이다. 게다가 초단시간 노동자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해 4대 사회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

여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고용주들이 '쪼개기 고용'을 애용하기 때문이다. 많은 고용주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 여러 명을 고용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알바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편의점 구인 공고 기준 전체 일자리의 61.3%가 초단시간 일자리였다. 이채은(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은 사업주들이 인력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혹은 자영업자가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쪼개기 고용의 성행으로 인해 다수 청년층이 초단시간 일자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다수의 초단시간 일자리에 종사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불가피하게 복수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청년들은 1주간의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간주됨에 따라 각종 권리에서 배제된다. 홍흥민(알바연대) 대변인은 "많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수입이 부족해 다른 초단시간 일자리 여러 개를 겸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률에 명시된 각종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고, 단시간 노동자와 통상 노동자로 체계를 단순화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승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시장 정책 등을 수립할 때 특정한 이유 없는 노동자 차별을 금지한다"며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과 이상 일하는 사람을 차별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조건이 근로시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모든 노동자는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노동 인권이 배제되는 식의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양승엽(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초단시간 노동을 용돈벌이나 부업 정도로 낮춰 보는 인식이 있는 경향이 있다"며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조속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신지원 기자 idj_b01@naver.com



〈편집자주〉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어느 세대나 그랬듯, 현 젊은 층도 자주 듣는 물음이다. 진짜 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알아봤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는 기자가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MZ세대의 대표주자인 기자를 따라 청년이 열광하는 것을 파헤쳐보자.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풍기는 향이 탐나는 순간, 한 번쯤 있지 않은가? 향기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채 우리 주변을 맴돈다. 최근의 청년은 향기를 이전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법으로 향유하고 있다. 팝업스토어에서 즐기는 향수부터, 공간을 꾸미는 데 활용되는 ‘인센스 스틱’, 그리고 친환경 비누까지. 청년들의 후각이 머무는 곳에 동행한다.

박희진 기자 fur1120@naver.com

청년, 향기 속으로

유일무이, 나만의 향을 위해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향’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향기는 무엇보다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사랑받는다. 박초희(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 교수는 “향기는 자신의 스타일을 일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향기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는 언제부터일까. 일각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마스크 착용이 향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계기라고 지적한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색조 화장 등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효과를 잃자, 사람들은 후각이 자극되는 향기로 시선을 돌렸다는 의미다. 임관우(서울디지털대학교 뷰티미용전공) 교수는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 시각적인 부분이 일부 차단되는 문제가 생기자, 후각적인 방법으로 본인을 드러내려는 욕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신만의 개성을 후각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청년들은 니치 향수를 택했다. 니치는 ‘틈새’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니키아(nicchia)’에서 파생됐다. 니치 향수는 희귀 성분과 천연 향료 등과 같은 주변에서 흔치 않은 고급 재료를 주재료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향수와 달리 토마토 향, 가죽 향 등과 같은 특색 있는 향을 갖는다. 임 교수는 “본인의 취향과 가장 유사한 향수 제품을 찾기 위한 디깰소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다운(센트오르간) 심리조향사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향수를 찾는 데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청년세대는 자신의 대한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심리가 반영돼, 자신을 위한 소비는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한정판 상품 등 다시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되파는 ‘리셀(재판매)’이 확대되면서 향수로 재테크를 하는 ‘향테크’ 문화도 나타나고 있다. 향테크는 한정판 향수에 투자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정 조향사가 특정 연도에 조향한 향수는 다시 구입할 수

없기에 좋은 상태로 보존된 한정판 향수는 가치가 증가한다. 임 교수는 “한정판에 대한 소비문화는 향에서 시작됐기보다, 리셀이 증가하며 해당 문화가 향수까지 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수, 말아야 산다

좋아하는 향을 찾아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당신은 향수를 어디에서 구매하는가. 최근에는 오프라인 향수 매장이 주목받는 추세다. 오프라인 향수 매장은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전문가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거와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오프라인 향수 매장은 행사를 통해 매체의 관심을 끌고, 인플루언서와의 협력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기도 한다”며 “이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해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향수 제작 기업은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팝업스토어는 인터넷의 팝업 창처럼, 사람이 붐비는 특정 장소에서 짧은 기간 운영되는 오프라인 매장을 의미한다. 임 교수는 “팝업스토어는 브랜드가 가진 향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향수 팝업스토어는 어떤 형태로 청년을 유혹할까 궁극해 ‘이구성수’에서 진행된 ‘SW19(에스터블유나인틴)’의 팝업스토어를 방문했다. 향수라면 당연히 가느다란 막대 모양의 시향지에 뿌려 말아본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곳에서는 향수가 담긴 병에 연결된 펌프를 눌러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마치 실험하는 느낌이 물씬 풍겨 기존의 방식에 비해 색다른 즐거움을 느꼈다. 그뿐만 아니라 SW19 제품들의 향 분위기와 어울리는 사진엽서에 향수를 시향하고 간직할 수 있었다. 유한승(무신사 공간경험팀) 공간세일즈파트장은 “이구성수의 방문객 중 20대 방문객 비율이 60% 이상 되는 등 젊은 층의 관심과 이벤트 참여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향기가 가는 길을 따라

청년에게 향기는 공간까지 장악했다. 자신의 향으로 공간을 인테리어하는 일명 ‘향테리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젊은 층의 향테리어는 ‘리추얼 라이프(Ritual Life)’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리추얼 라이프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규칙적인 습관을 뜻한다. 임 교수는 “젊은 층은 생활 방식의 루틴화를 넘어 자신이 머무르는 공간에 향을 더하는 과정과 시간 또한 루틴화시킨다”고 전했다.

향테리어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최근 젊은 층은 그 수단 중 하나로 ‘인센스 스틱’을 활용한다. 인센스는 ‘불태우다’, ‘밝히다’의 의미인 라틴어 ‘인센데르(Incendere)’에서 유래했다. 인센스 스틱은 숯이나 나무 반죽 등에 향료를 더해 향기는 연기를 방출하도록 만든 막대기 모양의 제품으로, 휴식과 안정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향물을 피운 후 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향기를 즐기는 ‘향멍’ 트렌드를 생성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시각적인 부분과 후각적인 부분의 결합에 의해 탄생한 문화”라며 “다만 실내 공간에서 환기하지 않고 향을 피우는 경우 폐 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자도 인센스 스틱을 판매하는 매장에 방문해 직접 구매해 봤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향기는 자연스레 인센스 스틱의 소비를 부추긴다. 인센스 스틱 좀 사봤다는 동료 기자의 추천으로 가장 보편적인 향과 은은한 향, 두 가지를 골랐다. 인센스 스틱을 끼우는 홀더에 꽃아 불을 붙인다. 피어오르는 향기를 자연스레 멍하니 보게 된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뇌 속이 맑아지며 비취진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공간이 향으로 가득 채워진다. 취향에 맞는 향으로 가득 찬 공간은 형성할 수 없는 만족감을 준다. 며칠이 지나자 마치 중독된 듯 생각날 때마다 인센스 스틱을 태우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나의 취미로 자리 잡은 듯하다.



사진: 신지원 기자

▲ ‘이구성수’에서 진행된 ‘SW19’ 팝업스토어에서 펌프를 눌러 시향 중이다.

비누로 향기를 입다

향기와 더불어,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최근의 가치소비 트렌드가 반영돼 ‘비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몸에서 나는 향을 가꾸는 것에 비누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비누는 몸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취향에 맞는 향기 선호도에 따라 개인의 감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말했다.

가치소비 트렌드에 동참하고자 기자도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 봤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친환경 비누 만들기 키트를 구매할 수 있었다. 동봉된 비누 베이스를 녹이고, 작은 종이컵 안에 천연 분말을 넣고 정제수로 개어줬다. 단호박, 클로렐라, 원두 분말이었다. 식탁에서도 본 익숙한 재료다. 이후 베이킹소다와 레몬 향이 나는 천연 에센셜 오일을 섞고 틀에 부어 완성했다.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인지 모두 알 수 있다는 점이 직접 만든 비누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향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 나의 취향을 가득 담아 만들 수 있었다. 완성한 비누를 동료 기자들과 함께 사용했는데, 보통의 비누보다 보습 효과가 좋다는 평을 받았다. 완성하고 사용해 보니 ‘아 로마 테라피가 이런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비누를 만드는 내내 느껴지기도 했다. 이에 더해 친환경 비누 만들기를 통한 가치소비, 청년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제대로 깨달았다.

*디깰소비 : ‘파다’를 뜻하는 영단어 ‘dig’에서 파생했으며,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품목이나 영역에 깊게 몰두하는 행위가 관련된 제품 소비로 이어지는 것



사진: 신지원 기자

▲ 시향지 역할을 하는 엽서에 향수를 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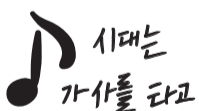
사진: 신지원 기자

▲ 인센스 스틱을 판매하는 매장 앞에서 구매한 제품을 들고 있는 기자



사진: 신지원 기자

▲ 비누 베이스에 천연 에센셜 오일을 넣어 친환경 비누를 만들었다.



음악 속 달라진 사랑의 방정식

“가시리 가시리이고 나난 / 버리고 가시리이고 나난” 고려시대 민중 사이에서 불린 속요 ‘가시리’의 도입부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며 버림받은 마음을 표현하는 화자의 모습이 약 10세기가 지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사랑’이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라고 말한다. 김태룡(경희대학교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사랑은 인류의 가장 강렬한 감정으로, 시대를 초월해 대중들의 관심사로 자리하고 있다. 대중의 감정구조가 문화적으로 표출된 결과”라고 밝혔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노래가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은 1960년대다. 봉봉사중창단의 〈꽃집 아가씨〉는 “그녀만 만나면은 / 그녀만 만나면은 / 내 가슴 울렁울렁거리려”라며 꽃집 아가씨를 향한 사랑을 고백했다. 오

지현 음악 칼럼니스트는 “도시화와 경제성장으로 삶이 전보다 풍요로워지면서 사랑의 초점이 ‘고향’ 등에서 ‘이성’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지고지순하고 헌신적인 ‘낭만적 사랑’이 돋보였다. 1970년대 송창식의 〈돌이 돌이만〉은 “돌이 돌이 와 / 단둘이만 와 / 단둘이만 걸어와”라며 둘만의 세상에 사는 듯한 느낌을 준다. 1980년대에도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는 “매일 그대와 아침햇살 받으며 / 매일 그대와 눈을 뜨고파”라며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낭만적 사랑은 고도성장기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랑과 연애를 통한 결혼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김현식 문화평론가는 “해당 시기는 연애 담론이 증가하고 낭만적 속에서 남녀 관계의 장

밋밋을 꿈꾸던 시절이었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에는 X세대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양상의 사랑 노래가 등장했다. 개인주의를 대표했던 X세대는 사랑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풀이된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은 “너와 내 친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돼있었지”라며 친구에게 자신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철의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는 금기시된 사랑을 표현했다.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은 “지척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하지”라며 ‘원태’의 감정에 현실적으로 접근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별에 있어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음악도 등장한다. 특히 2010년대부터는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경향이 강해

졌다. 에일리의 〈순대지마〉는 “니가 뭘 안다고 사랑하진 뭘 한다고 / 뭘 필요 없어 꺼져 far away”라며 강경하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시한다. 황은지(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는 “여성상의 변화, 여성의 사회적 위치 변화 등 당시 사회적 변화와 맥을 함께 하는 것”이라며 “순정과 여성상이 이별 앞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것과 달리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내뽐고 비교적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가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0년대 사랑 노래의 또 다른 키워드는 ‘썸’이다. “요즘 따라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 니꺼인 듯 니꺼 아닌 니꺼 같은 나”로 유명한 소유와 정기호의 〈썸〉을 시작으로 다양한 음악이 등장한다. 권현석(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썸은 관계에 대한 확장된 시선 중 하나다. 다

양화된 소통 환경과 맞물려 관계를 보다 폭넓게 바라보면서 관계로서의 ‘썸’을 재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음악 칼럼니스트는 “썸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명사로 사용될 정도로 그 의미가 뚜렷한 단어다. 썸이 내포한 사랑의 형태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음악이 다수 등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 대중가요는 다양한 사랑의 방식을 반영할 것이다. 김학술연구교수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연애를 기피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당장의 연애 감정을 대변하는 기능은 다소 약화되더라도 사랑 노래가 연애에 대한 대안적 감정을 제공하거나 이상적 관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은 계속할 것”이라 내다봤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제17회 사진공모전

최우수



6년 동안 함께한 이신영(사회과학 4)

아간대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학교할 때 급하게 집에 가느라 본 적 없는 학교를 다시 돌아 봤던 날이었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추억도 많고, 내 20대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졸업할 때 돼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후배님들은 후회로 남기기보단 차곡차곡 쌓인 날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보내봅니다.

최우수작 수상소감

누구나 가진 추억

졸업하는 지금 저는 가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학우님들께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저는 23살에 아간 소속으로 입학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는 내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성적이 아쉬웠고 결과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학교생활도, 일상생활도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송세월하며 보냈던 시간 속에 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난 지금에야 '그 시간을 좀 더 빛나게 보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보니 한성대학교에서 보낸 20대의 정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남긴 시점도 이쯤이었는데 누구보다 급하게 학교를 하다 바라본 본교는 다양한 기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연, 현장실습, 지원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늦게 알아봤지만 후배님들은 한시라도 빨리 아서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율이 높아지면 인콰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6년 동안 함께했던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시간 동안 참 많은 고민도 하고 성장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간 바탕으로 앞으로는 차곡차곡 최선을 쌓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성대학교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으로 채우고 배우고 반박하며 더 넓은 이해를 가진 아님답고 열정 있는 인물로 성장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에 대한 생각을 후배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사진을 제출했는데 말이 참 길어졌네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한성대학교에서 다양한 시간을 보내 본교가 좋은 기억이 있는 곳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17회 사진공모전' 주최에 대한 감사를 남기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작 수상소감

지원 요청

한성대입구역과 한성대학교 사이를 등하교하며 자주 오르내리게 된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 계단이 맞습니다. 높다랗고 쓰레기가 가득한 계단 말입니다.

입학한 지 이제 막 3달 돼가는 1학년 새내기인 제가 처음으로 본교를 향해 등교할 당시 계단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쩌면 아직도 계단은 더러운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더더욱 머릿속에서 잊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러운 계단도 계단이지만 거기서 현상 유지도 아닌 악화를 시키고 있는 얼굴 모를, 이름 모를 누군가로 인해 계단은 나뉘어 그 더러움을 더해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다 하다 잠시 못한 제가 자발적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종량제 봉투를 가져다가 분리수거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성대신문사 주최의 '제17회 사진공모전(이하 사진공모전)'을 접하게 된 것은 정말이지 우연이었고, 영감이 떠오른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쇠붙도 단검에 빼듯 그날 학교 도중 위에서 언급한 계단을 작품 설명처럼 빛과 어둠, 인공과 자연 등 대비되는 두 모습을 담으려 노력하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늘 풍경이나 음식 같은 두고두고 보코포 내용만 사진에 담아 남기던 제는 어떠한 문제 상황을 담은 사진 촬영이 처음이라 어색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진공모전 참가도 처음이었기에 지원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하는 것조차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축 4000px 이상'이라는 사진공모전 제출 규격 조건조차 커다란 장벽으로 다가왔을 정도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진공모전에서 제 사진이 선정된다면 지금껏 지켜본 문제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해 제가 찍은 사진, 아니 이제는 작품인 '대비'를 투고했습니다.

위와 같은 마음으로 작은 기대를 걸고 투고한 제 작품이 가작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하니 정말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기회를 제공한 한성대신문사와 제 작품을 가작으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께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비 김진우(인문 1)

한성대 인근 계단에서 가운데 위치한 계단 손잡이를 중심으로 두고 보았을 때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담았습니다. 오른쪽은 햇빛을 내리쬐어 밝고 생기가 느껴지지만 왼쪽은 공사장 가림 벽으로 인해 그늘진 모습과 무단투기 된 쓰레기들이 울음하고 칙칙하게 느껴집니다. 더불어 때마침 왼쪽에서 계단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의 모습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구석이 있네요. 작품의 제목인 '대비'는 이중적 의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담은 대비(對比)면서도 크게는 이를 하나의 사례로 삼아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對備)를 촉구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작

아쉬운 작품들



마지막 기회 강민아(ICT 3)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꽃에는 실랑거린다는 말이 어울린다. 하지만 그물 같은 쓰레기에 갇힌 꽃의 흔들리는 움직임은 마치 물고기의 퍼덕이는 몸짓 같다. 절대로 아름다울 것이라 여겼던 풍경조차도 작은 행동 하나에 정반대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심하게 오열된 지금의 환경조차도 다시는 못 볼 풍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되새긴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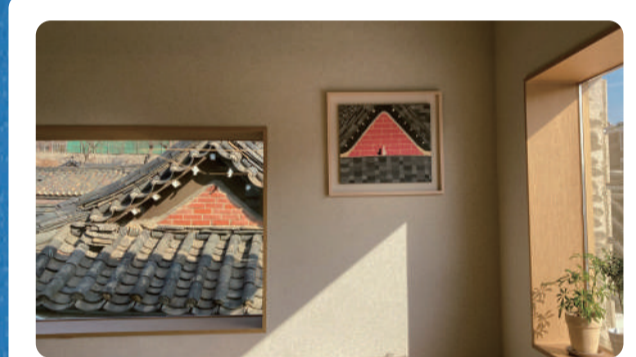
한낮의 언덕 유민정(사회과학 4)

마이애미 해변 뒤에서 찍은 한낮의 언덕입니다. 햇빛의 따스함과 초록색 언덕이 주는 포근함을 느끼며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초록빛의 언덕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며 마이애미 해변의 언덕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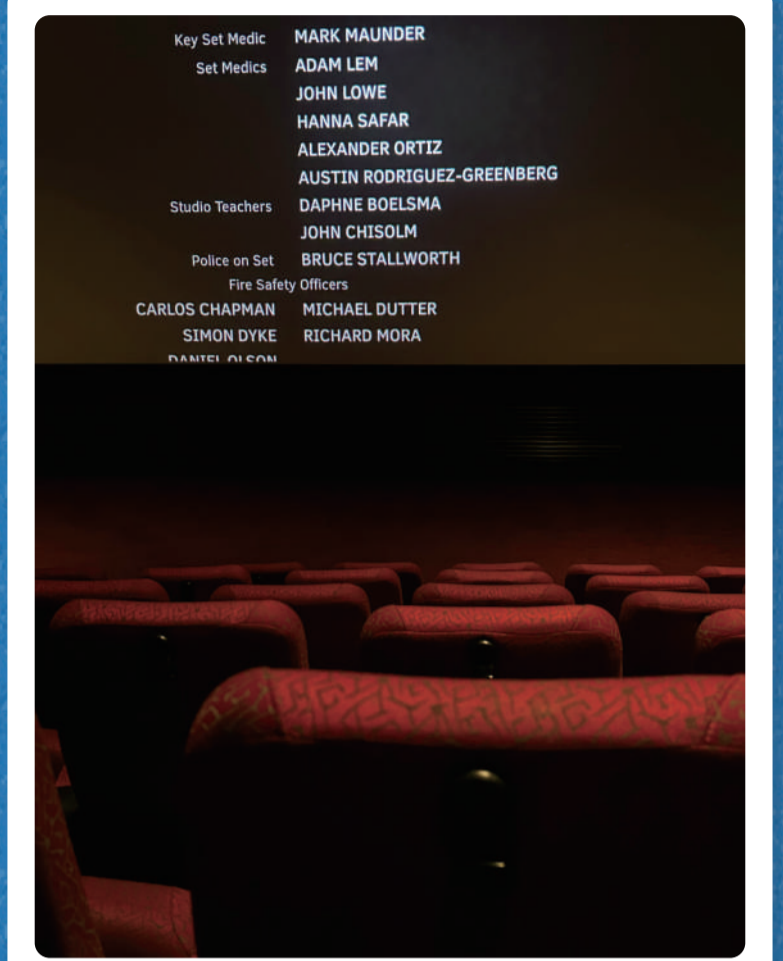
현대와 과거의 공존 홍민혁(사회과학 1)

부산 북천사에서 바라본 일몰



창문 밖 그림 그림속 창문 남윤서(무용 1)

복층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 우연히 올라간 2층이었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평온하고 잔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뒤에 있던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기와지붕 위에 나란히 앉아있는 토끼와 고양이가 퍽 귀여웠다. 한참 동안 그림을 보다가, 눈을 돌려 창밖을 봤을 때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림 속의 기와지붕과 똑같은 지붕이 창 밖에 있었다. 그 전엔 알아채지 못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 토끼와 고양이 가 정말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을 것만 같았다.



영화가 끝난 뒤 권유진(사회과학 3)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가벼운 얘기 주제로 자주 나오는 것은 아마도 "취미가 무엇이에요?"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극장에 가서 영화보는 것을 즐깁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꽤나 분명합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이유는 해방감 때문인데요, 조영이 꺼지고 모든 감각이 영화에 집중될 때의 은근한 무의식 상태를 좋아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그 무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으니 그럴 땐 극장이 주는 해방감이 영화 말고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무의식의 상태가 쉽게 찾아오지 않으니 안정감을 찾고 싶을 때마다 영화관에 가곤 하는데, 극장은 저에게는 가장 낮은 단위로 일상에서 도망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가 끝난 뒤에도 크레딧이 다 끝나기 전까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화면이 꺼지기를 기다립니다. 영화에 참여한 제작진들까지도 영화의 일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관객으로서 그 영화에 마지막 점을 함께하는 기분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가 끝난 뒤까지 모든 부분의 영화를 다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심사평



심사위원 호준진 자문위원 (한국사진작가협회)

약력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교육전문위원회 위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촬영지도자, 교육지도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29대 이사
- (사)한국프로사진작가협회 교육자력위원회 위원
- FPC 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찰칵! 당신의 순간을 보여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한성대신문사 주최의 '제17회 사진공모전(이하 사진공모전)'이 개최됐습니다. 학생부터 교직원까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진공모전의 심사를 맡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진공모전을 통해 한성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한성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게 됐습니다. 심사는 ▲작품성 ▲구성감 ▲완성도 ▲내용성 ▲창의성 등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각각 20점을 부여해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내용성'은 출품자의 기획 의도와 작품의 주제가 적합한지를 고려해 평가했습니다.

심사는 빛의 예술입니다. 우리가 빛이 있어 사물을 인지하듯 한 점의 사진 작품 또한 빛으로 그려낸 빛의 예술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빛을 이용해 작품으로 승화시켜 예술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최우수작인 이신영(사회과학 4)의 <6년 동안 함

빛을 담은 일상

계한)은 졸업을 앞둔 학생이 학교와 바쁜 일상을 뒤돌아보며 미처 보지 못한 학교의 모습과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을 담은 작품입니다. 작품의 기획 의도와 작품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작품에서 나타난 전기선들은 젊은 20대의 삶과 무한 경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학교의 아궁은 우리의 보금자리인 행방으로 가는 길의 종점이자 안식처로 표현돼 떠나는 자신의 행복의 집을 그리는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김진우(인문 1)의 <대비>는 가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 늘 오가던 계단에서 빛과 어둠의 조화에 우리 인간의 이중적인 면과 환경오염에 대한 의도를 내포했습니다. 흑과 백의 대비를 통해 인간의 모순적인 존재와 환경 문제를 표현한 내용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성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심사평을 끝냅니다. 공모전은 경쟁의 장이지만, 참여하고 노력한 모든 분들은 이미 큰 성취를 이뤘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더욱 빛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위해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훌륭한 사진 작품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양한 작품 중에는 강민아(ICT 3)의 <마지막

기회>, 권유진(사회과학 3)의 <영화가 끝난 뒤>, 남윤서(무용 1)의 <창문 밖 그림, 그림속 창문>, 유민정(사회과학 4)의 <한낮의 언덕>, 홍민혁(사회과학 1)의 <현대와 과거의 공존> 등의 작품도 우수했습니다. 사진공모전에서 아쉽게 낙선하신 모든 출품자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의 예술성은 조금 미숙하지만, 그 속에는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 중에는 김민아(ICT 3)의 <마지막

푸른 한성인의 밤이 붉게 물든 날

대학생활의 한 페이지를 채운 3일간의 대동제가 지난달 12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동제는 작년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고, 다양한 부스의 각종 이벤트와 음식을 즐기려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1일 차에는 '이음노래방'이 흥을 띄웠으며, '4호선마이크', 'brillante'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영화제 상영'도 진행돼 늦은 밤까지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차에 열린 '낙산가요제'에서는 많은 학생이 주제 못 할 끼를 발산했고, '왕산악'과 '들불'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부드러운 음식을 자랑하는 '임재현'과 신맛한 '오마이걸'의 무대가 펼쳐졌다. 3일 차에는 '탈패', 'NOD', 'TRAX' 등이 각자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헤이즈'와 '호미들', '밀김치'의 무대는 많은 학생의 함성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대동제는 마지막 날의 '카더가든'과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미노이'의 무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푸른 한성인의 밤을 붉은 함성으로 가득 메운 대동제,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자.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공연을 보기 위한 학생들로 잔디광장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부스 운영진들이 자신들이 만든 외판과 솜사탕을 들고 있다.



제 29회 낙산가요제 준우승자인 이영호(매디 00)가 자신의 '바보'를 열창했다.



가수 '미노이'가 무대를 거닐며 관객의 호응을 즐기는 중이다.



낙산가요제에서 김태원(CT 3) 학생이 자작곡 'No fade'를 선보였다.



송실대학교 3학년 성유빈 참가자가 자작곡 'SWEETLUKEGREEN'을 부른다.



세종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 '세로'가 자작곡 '제자리로 제자리로'를 불렀다.



사진: 황서연 기자

가수 '임재현'이 호응을 유도하며 대동제 아티스트 공연의 첫 시작을 알렸다.



사진: 황서연 기자

공공행정트랙과 법&정책트랙 연합 부스에서 학우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만든다.



사진: 신지원 기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부스에 학우들이 모여 담소를 나눴다.



사진: 황서연 기자

가수 '헤이즈'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무대를 장식했다.



사진: 황서연 기자

가수 '호미들'이 관객들을 바라보며 무대를 펼치고 있다.



사진: 황서연 기자

기업-경제분석트랙과 금융-데이터분석트랙 연합 부스 운영진들이 포즈를 취했다.

축제가 가득 지핀 열기 황홀경에 빠졌던 우리



사진: 황서연 기자

가수 '카더가든'이 스탠딩에서 마이크를 빼어 열정적으로 공연한다.



사진: 신지원 기자

많은 학우가 가수 '미노이'와 사진을 찍으려 손을 뻗는다.



사진: 김기현 기자

가수 '오마이걸'의 공연이 무리이자, 관객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사진: 김기현 기자

'CCC' 부스에서 학우가 물풍선 던지기 게임을 즐기고 있다.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을 자격, 영세중립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다 시금 주목 받는 국가들이 있다. 바로 '영세 중립국'이다.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영세중립국 지위를 포기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협상 테이블에 자국의 영세중립화 방안을 올려 놓기도 했다. 영세중립국이 뭐길래, 세계가 주목하게 된 것일까.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립'이란, 전쟁 당사국 중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전쟁 당사국에 군사적 원조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중립 지위를 전쟁이나 갈등 상황에 관계없이 영원히 갖는 국가를 '영세중립국'이라 부르는 것이다.

영세중립국은 세계 곳곳에 위치한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등 영세중립국이 그 나라의 정체성으로 자리잡은 국가도 존재하며,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영세중립 지위를 유지해 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 지위를 포기한 국가들도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등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세중립국 중 하나다.

역사 속에서 힘이 약한 국가가 영세중립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주변국이나 강대국의 전쟁 등에 휘말릴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세중립 지위가 더 이상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위를 내려놓을 수도 있다.

스웨덴은 안전과 이익을 위해 19세기경부터 중립 외교를 펼치다가, 러시아가 우크

라이나를 침공하자 영세중립국 지위를 내놓았다.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 등의 서방 국가가 대거 가입한 집단 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가입을 신청하면서다. 19세기 후반의 스웨덴은 당시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독일과 본래 발트해 연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러시아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을 취했고, 이는 스웨덴 중립 정책의 토대가 됐다. 김인준(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는 "스웨덴이 200년 이상 유지해 온 중립을 포기한 것은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세중립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영세중립국으로 거듭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김 연구교수는 "강대국 간 이해충돌로 안보와 생존권을 위협받는 국가에게 영세중립은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조건은 '주관적 조건'이다. 영세중립국을 지향하는 국가의 국민과 지도자가 영세중립화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객관적 조건'도 갖춰야 한다. 이는 주로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강대국이 이웃해 있는 경우라면, 영세중립화 전략을 검토할 만한 객관적 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임상우(서강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는 "지리적인 위치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이들 간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유럽의 작은 국가들이 중립을 시도했거나 유지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국제적 조건'이다. 주변국과

의 협정 또는 동의 등을 통해 영세중립 지위를 인정받아야 함을 말한다. 강유덕(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Trade학부) 교수는 "우리는 중립국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영세중립국 중 하나인 스위스는 1499년 독립한 이후부터 줄곧 영세중립화 정책을 지향해 왔다. 그리고 스위스는 스스로 영세중립국을 표방한 지 약 300여 년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유럽의 중앙에 자리한 교통의 요지였기에, 주변국으로부터 잦은 외침을 당해 온 역사가 스위스 영세중립화의 배경이었다. 영세중립화를 선언한 이후에도 스위스는 프랑스 등 주변국의 침입을 겪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스위스는 지속적으로 영세중립 노선을 고수했고, 1815년에 이르러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유럽 주요 강대국 대표자가 모인 '빈 회의'에서 스위스의 영세중립국 지위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된 것이다. 임 교수는 "스위스는 산악지대라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 중세 이래 통일된 중앙집권적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강대국에 의해 침탈되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세중립국인 오스트리아의 사례에서는 특히 국제적 조건이 영세중립화에 반드시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령이었던 오스트리아는 전쟁이 끝난 이후 승전 4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에게 분할 점령됐다. 이 때문에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 도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위시로 한 공산주의 진

영이 대립하는 '냉전' 시기가 도래하자, 강대국들 모두가 오스트리아에서의 패권을 놓지 않았다. 이에 오스트리아 임시정부가 독립을 위해 영세중립화 방안을 꺼내들었다. 당시 소련의 최고지도자였던 스탈린은 오스트리아를 공산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싶었기에, 영세중립화 방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스탈린 사후 취임한 흐루쇼프는 오스트리아의 공산화는 이미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스트리아 영세중립화 방안에 힘을 실어줬다. 소련이 마음을 돌린 덕에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화 및 독립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며, 결국 오스트리아는 1955년 독립함과 동시에 영세중립 지위를 얻었다.

영세중립국의 중립 의무는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 중립 지위가 전쟁이나 갈등 상황을 전제할 것이기에, 영세중립국들은 군사·정치적 영역에서는 엄격한 중립을 지킨다.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체제 등에 가입하거나, 특정 국가에 무기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러한 중립 의무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실제로 스위스는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유럽 국가의 연합체조차 가입하지 않았지만, 자국의 권익을 위해 경제적 교류만큼은 활발히 진행한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강 교수는 "스위스는 유럽연합(이하 EU)에 가입돼 있지 않지만 EU와의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영세중립국 지위의 지속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러시아의 무력 행사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내 다른 국가를 향한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교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해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의해 피해를 보아 왔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시도하는 것이다. 양국이 나토에 가입하면 북유럽 전역에 걸쳐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립 전선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영세중립국 지위를 포기한 스웨덴, 핀란드를 제외하고도, 스위스조차 영세중립국으로서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는 실정이다. 스위스는 올해 들어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단행했고, 이것이 자국 내에서도 중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세계가 분쟁에 휩싸일 때 영세중립국의 지위가 위태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세중립국 지위를 내려놓아도 중간자 역할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경쟁 상대국에 우리 편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우리 편에 반대쪽의 입장을 알리는 일을 맡을 것이라는 의미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영세중립은 한 국가의 대외적 입장과 동시에 사회문화적 유산이기도 하다"며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시도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화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서방 세계가 러시아 등과 접촉할 때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발트 해 : 북유럽에 위치한 바다로, 덴마크·독일·러시아·스웨덴·핀란드 등에 둘러싸여 있음
**빈 회의 :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를 수습하기 위한 회의. 러시아·영국·오스트리아·프로이센 등이 주도함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건강인사이드

식습관 조절, 속 편해지는 지름길

커피를 마시거나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속이 쓰리거나, 시고 쓴맛이 느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는가. 이러한 통증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역류성식도염을 의심해 보라. 최근 젊은 층에서 역류성식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4년간 20대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 수는 30% 넘게 증가했다. 조유경(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역류성식도염 환자가 꾸준히 많아지고 있는데, 젊은 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역류성식도염은 위(胃) 속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 혹은 구강으로 역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가슴 안쪽에 타는 듯한 통증이나 속 쓰림을 일으킨다. 위산은 위액 속에 들어 있는 산성 물질인데, 위산 역류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 식도 손상과 염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조 교수는 "식도염의 반복은 식도가 좁아지는 '식도 협착'을 일으켜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지고, 식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역류성식도염은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할까. 역류성식도염은 하루 식도에 위치한 괄약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다. 하루 식도 괄약근은 식도와 위 사이에 위치하며, 식도의 하부를 지탱하는 고리 모양의 근육을 의미한다.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음식을 삼키거나 트림할 때만 열린다. 이러한 하루 식도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거나 부적절하게 열리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한다. 김윤재(가천대학교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하루 식도 괄약근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음식 및 위산이 식도로 올라가 식도 내 pH*가 감소한다"며 "식도 내 장기적인 pH 감소는 식도 점막의 손상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식도열공탈장'도 역류성식도염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다. 식도열공이란 횡격막*

에 위치한 식도가 지나는 구멍이다. 식도열공탈장은 식도열공을 통해 위의 일부가 가슴으로 올라가는 탈장의 일종이다. 박성철(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위식도접합부는 하루 식도 괄약근과 횡격막이 각각 내적, 외적 구조를 형성하며 해부학적으로 서로 겹쳐 있다"며 "식도열공탈장이 발생할 경우 하부식도괄약근이 횡격막의 근위부에 위치하게 되면서 횡격막에 의해 죄는 힘이 저하돼 역류성식도염이 쉽게 동반된다"고 말했다.

어떤 방법으로 역류성식도염을 치료할 수 있을까. 먼저, 위산 분비를 억제하면 위액이 역류하더라도 식도 점막의 손상이나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위산분비억제제를 사용해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우선된다. 그러나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방식의 약물 치료는 위산이 역류하는 '현상' 자체를 완전히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역류 현상을 일으키는 하루 식도 괄약근의 기능

저하나 식도열공탈장과 같은 인체 구조적 문제는 내시경이나 수술로 해결해야 한다. 김 교수는 "증상이 심할 경우 내시경 치료나 위식도 괄약근 부위를 좁히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류성식도염은 상술한 바와 같이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병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다. 따라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투약을 지속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유인경(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역류성식도염은 약물 치료로 증상이 감소되고 식도 미란**이 치유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위산분비억제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는 간단하고 효과적이지만 유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역류성식도염이 식습관과 연관 깊어, 식습관의 교정을 당부한다. 요즘 보편화된 지방이 많이 포함된 서구식 식습관의 음식은 하루 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낮추기 때문이다. 또한,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커피 등의 카페인도 많이 포함된 음식을 가급적 삼가야 한다. 유 교수는 "식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역류성식도염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식이에 있어 역류성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위산 분비가 적은 음식을 권고하는데, 대표적으로 저칼로리·저지방 음식 및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pH : 수소 이온 농도로, 화학에서 물질의 산성 및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사용됨
**횡격막 : 가슴과 배를 나누는 근육으로 된 막
***미란 : 피부 또는 점막의 표층이 결손된 것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마침표를 찍으며

2년 4개월가량의 학보사 생활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다. 그중 편집국장으로서 일한 1년을 되돌아보니, 처음 부임하며 독자에게 미지근하게 다가가지 않겠다던 다짐이 떠오른다. 이 각오의 일환으로 ▲광고 없는 신문 ▲문제의식이 뚜렷한 신문 ▲소수의 학내 구성원도 살피는 신문이라는 3가지 원칙을 세우며 발행을 이어 나갔다. 학보 중에서도 발행주기가 긴 편에 속하는 <한성대신문>의 특성상, 광고로 지면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광고가 차지할 공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사를 신고자 하는 마음에 광고 신기를 지양했다. 문제의식이 뚜렷한 신문은 기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힘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사실이 곧 강력한 기사의 메시지가 돼, 글에 별다른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기본이 탄탄한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학내 구성원도 살피는 따뜻한 언론이 되고 싶었다. 이해관계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다수가 얽혀있는 담론에 밀리는 데에 앞장서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지점도 분명하다. '아젠다 세팅', 즉 의제 설정에만 심혈을 기울인 것은 아닌지에 대해 숙고했다.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 집중해, 의제를 끌고 가며 꾸준한 문제를 제기하는 '아젠다 키팅'을 놓친 것은 아닐까. ▲트랙 구조조정 ▲야간 학생 처우 ▲학내 공간 부족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한성대신문>도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대표들도 목소리를 내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해당 사안들을 계속 취재하고 기사를 발행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념이다. 독자의 피로도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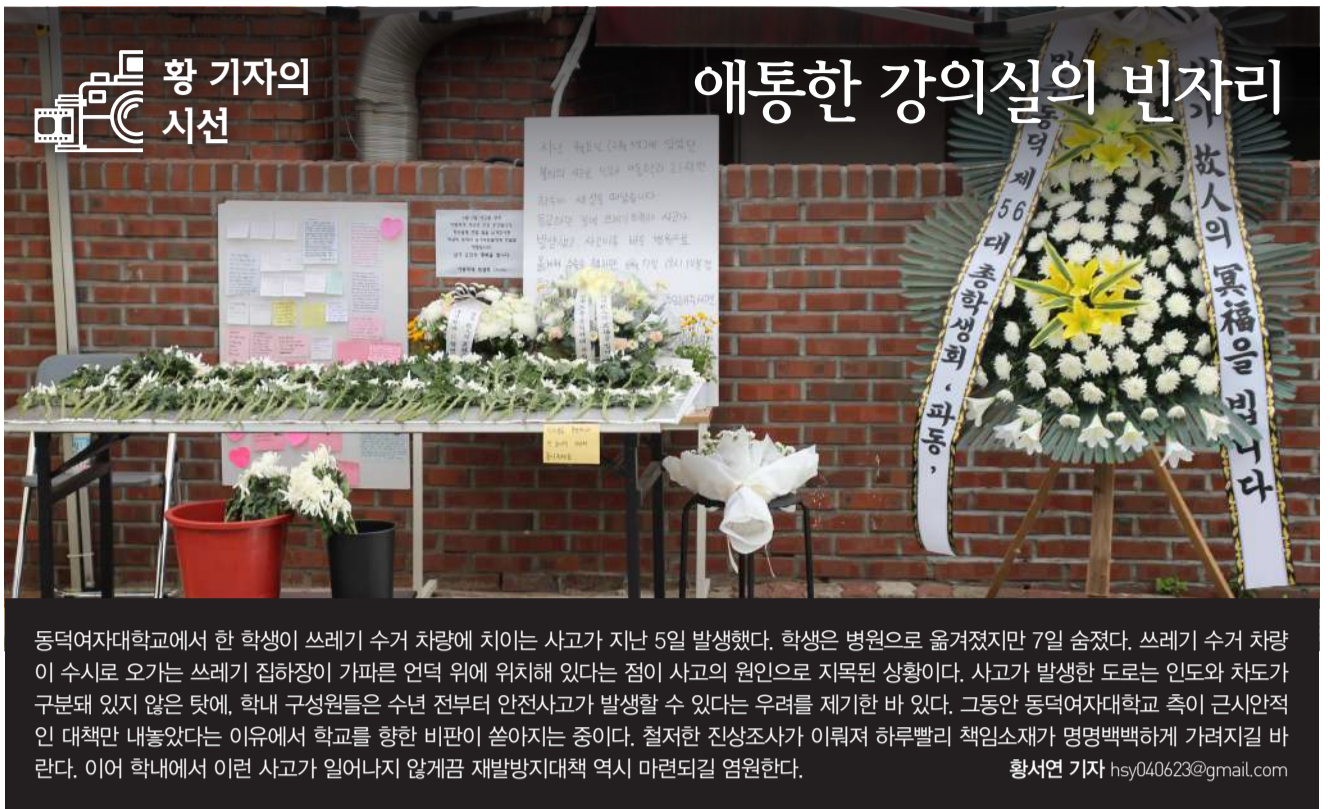
한 결정이었지만, 변화를 이끌어내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러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대학언론 전체로 확장됐다. 학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결국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는 학보사는 얼마나 될까. 본인은 올해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의 회장직을 겸임하며 34개 학보사의 상황을 지켜봐 왔다. 아젠다 키팅은 차치하고 아젠다 세팅도 힘겨운 학보사가 존재함이 현실이다. 인력난과 재정난, 그리고 빈번한 편집권 침해를 겪어내며 겨우 '발행'만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

학보사들은 아젠다 세팅에 심혈을 기울일 뿐 아니라 아젠다 키팅에 도전해야 한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는 학보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독특한 역할을 할 테다. 독자의 피로도가 걱정될 때면 '변화 도출'이라는 언론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 학내 구성원의 입에 끊임없이 오르내릴 때, 그 문제는 비로소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편집국장으로서 신문을 만드는데 치열하게 고민했던 나날들에 대한 소회를 밝히니 비로소 마지막임이 실감 난다. 앞으로의 발행을 이어갈 후배들이 상술한 내용을 실현하는 한성대신문사로 거듭나는 데에 일조해 주기를 부탁한다. 특히나 본교의 경우 비슷한 학내 이슈가 되풀이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 그 문제들을 꼼꼼히 되돌아 살펴보고, 끊임없이 펜을 움직이길 바란다. 의제를 끌고 나가는 힘이 강한 신문, 그래서 변화의 중심에 위치한 신문, 그것이 <한성대신문>이기를.

한혜정 편집국장



■ 기자수첩

기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어야 한다.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이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고, 그러려면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기자로서 밥 먹듯 해낸 일 역시 '쓰기'가 아닌 '듣기'였다. 신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무엇보다 학내 구성원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는 다짐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구성원의 목소리가 담긴, 구성원의 권익을 위한 신문을 만드는 경험은 기자로서 새로운 다짐을 하기에 충분했다. 본교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

■ 앞장서겠다는 다짐

었다. 몇 가지 문제상황을 발견했지만, 취재가 시작된 이후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또한 학내 장애인화장실의 설비가 관련 법령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발견했고, '보완하겠다'는 대학본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계기들이었다. 언론이 변화의 핵심으로서 기능하려면, 문제의식이 담긴 보도를 이어나가야 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문제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알리자 변화를 이끌 수 있으니 말이다. 분명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가 중심이 되는 신문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이유다. 이러한 기사의 밑바탕에는 결국 구성원

의 이야기를 최우선으로 듣는 태도가 전제돼 있다. 구성원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다른 이에게서 찾을 수 없지 않은가. 구성원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는 다짐을 누차 되새길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필자는 다음 학기부터 본사의 편집국장이 된다. '듣기'라는 언론의 첫 번째 역할에 충실해, 문제의식이 뚜렷한 기사를 발행하고 싶다. 이를 통해 변화를 이끌고 독자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신문을 만드는 것이 목표 중 하나다. 본질을 충실히 지키다 보면 어느새 본교의 발전에 앞장서는 언론이 돼 있을 것이다. 수많은 전환의 첫 단추가 될 앞으로의 <한성대신문>을 기대해도 좋다.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 낙산에 올라

최근 방영된 '모범택시'나 웹툰 '비질란테'에 대해 알고 있는가? 두 작품은 사적 제재를 다뤘으며,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적 제재를 다룬 작품들이 인기를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는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죄질에 따라 그 심각성과 위험성이 달라진다. 그러나 가끔은 범죄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범죄자에게 적절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방해하고,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적 제재'이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유, 사적 제재는 법적 제재만

■ 사적 제재에 대하여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복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피해자나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법에 의한 제재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욕구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이유, 법의 한계와 불만이다. 일부 사람들은 법의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가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쉽게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비판한다. 이들은 사회적 제재를 통해 법적 제재보다 강력한 경각심을 범죄자에게 심어주고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세 번째 이유는 직권 행사와 자기결정권이다. 사적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개인이 자신의 직권을 행사하고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의 몸은

법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적 제재를 택해왔다. 이처럼 일부 사람들은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범죄자가 법적 제재만으로는 적절한 사회적 제재를 받지 못하고 범죄를 반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을 띤다.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적 제재는 법과 범죄주의의 원칙을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하거나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사회적 혼란과 폭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정후(사회과학 2)

■ 의화정

지난 5월, 한성대학교 축제 열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가 있었다. 한성대학교 캠퍼스에 공연 무대가 마련되고, 흥겨운 음악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던 그때의 장면이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 공연이 진행되던 날, 탐구관으로 강의를 하러 가는 길에 흥겹게 공연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이 모습에서 젊음의 기운이 유난히 더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며 강의실로 향했던 기억이 난다. 그날, 빼곡하게 무대를 둘러싼 학생들을 보면서 2018년, 2019년 축제 때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엔 진행된 축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전에 진행되었던 축제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치고 열기가 달아오르고, 더 많은 학생들이 쏟아졌던

■ 내일을 위한 돌아보기

것 같다. 지난 3년간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을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듯 축제 분위기가 고조에 다다를수록 학생들의 함성은 더 커져만 갔다. 아마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없었다면 즐길 수 있었던 것들,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의 소중함을 지금처럼 느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 누릴 수 있다는 것, 일상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것은 지난 날을 겪어 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한 공간 안에서 함께할 때가 소중하다는 것을 과거에는 느끼기 어려웠을 것이다. 요즘 삼삼포포에서 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자주 본다. 함께하는 것이 허락

된 지금,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학생들은 한 단계씩 또 성장해 가고 있다.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해서 그것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된 지금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일상은 과거의 일상과는 다를 것이다. 지나간 시간은 늘 아쉬워하고 안타깝고 후회되는 시간이 되기 쉽다. 1학기를 애초 계획만큼 잘 보내지 못해서 아쉬워할 수도 있고, 졸업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 지나간 시간이 아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아쉬움들은 내일을 향한 도약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축제를 즐기지 못했던 몇 년 간의 아쉬움들을 모아서 더 크게 즐길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지난 날의 아쉬움을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시킬 때가 아닐까 싶다. 노정은(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 기자사령

- 정 기자 김유성(인문 2)
- 박건희(인문 1)
- 신지원(인문 3)
- 황서연(상상력 1)

■ 동정란

이상혁(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이 교수는 지난 1월 1일부터 2년간 '한성어문학회'의 학회장을 맡게 됐으며, 지난 4월 19일 '우리말이 국어가 되기까지' 도서를 출판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환 박선옥 편집국장 한혜정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아시아게임

이렇게나 재밌는데! AG 비인기종목

〈편집자주〉

스포츠 대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아시아인의 축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다. 백일 남짓 남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지난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으로 연기됐다. 9월 23일에 개막해 10월 8일 폐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어떠한 스포츠를 만날 수 있을까.

아시안게임은 평소 대중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스포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비인기종목' 혹은 '비인기종목'으로 불리기도 하는 ▲브레이킹 ▲세팍타크로 ▲스쿼시 ▲우슈 ▲클라이밍 등이 그것이다. 이 종목들은 경기 중계를 보는 것도 흥미진진하지만, 직접 해보는 것도 다른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종강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 속에서 보고 즐기며 경험해 볼 수 있는 스포츠를 선별해 봤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스포츠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최선의 결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운동하는 선수들의 경기를 접하게 된다면, 재미는 인기 종목 못지않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방학 동안의 다소 무료할 수 있는 삶을 달래줄 여가생활로 아시안게임의 비인기종목 시청을 적극 권한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사진 출처: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손으로 땅을 짚고 춤을 추는 비보이

길거리에서 세계로, 브레이킹

'브레이킹(Breaking)'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보이', '브레이크 댄스'로 알려진 스트리트 댄스의 종류다. 서로 춤을 추며 경쟁하는 문화를 가진 브레이킹은 1970년대 미국 뉴욕의 클럽에서 시작됐다. 이후 반세기 가 지나서는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첫선을 보일 브레이킹은 정식 종목으로서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김현준(대한브레이킹경기연맹) 부회장은 "브레이킹은 서로가 대결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스포츠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지훈(갬블러크루) 단장은 "국내 브레이킹은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세계무대를 주무르던 댄서들이 여전히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고 후진양성이 잘 돼 있지 않다. 아직은 우리가 브레이킹 강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후엔 장담하기 어려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수들은 무작위로 재생되는 음악에 맞춰 1대1로 대결하게 된다. 한 명의 선수가 먼저 선연한 후 다른 선수가 이에 맞서 춤을 선보이는 방식이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는 '트리비움 밸류 시스템(Trivium Value System)'이라는 심사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신체적 ▲해석적 ▲예술적 능력 등 크게 3가지 기준을 동등한 비율로 평가한다. 신체적 능력은 '기술'과 '다양성' 등의 신체와 관련된 자질을 평가하고, 해석적 능력은 '수행성'과 '음악성' 등 감성에 대해 점수를 매기며, 예술적 기준은 '창의성'과 '개성' 등 선수의 정신적 능력을 심사한다. 박 단장은 "정형화된 시스템 없이 시작된 문화이기에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트리비움 밸류 시스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세팍타크로 라이프

▲스파이크를 시도하는 세팍타크로 선수

경쾌한 음악에 맞춰 땅에 손 등을 짚어서 추는 '다운락', 회전 동작인 '파워부브' 등이 선보여지기에 보는 즐거움이 있는 종목이다. 선수 본인만의 독창적인 기술도 찾아볼 수 있다. 김 부회장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만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기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의 패션이나 춤 스타일 등 자신의 취향에 맞춰 선수들을 평가하는 방법도 보는 재미를 더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브레이킹을 배우고 싶다면 '크루'를 결성해 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학원에서 기본기를 닦은 후 크루를 결성해 다양한 대회에 참가해 보라는 것이다. 박 단장은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면 서로에게 조언이 가능하고, 건강한 경쟁 관계도 가질 수 있다. 크루를 통해 각종 대회에 참가해 보라"고 전했다.

하늘을 나는 묘기, 세팍타크로

'세팍타크로(Sepak Takraw)'는 네트를 두고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를 이용해 공을 넘기는 구기 종목의 하나다. '발로 차다'라는 뜻을 가진 말레이시아어 'Sepak'과 '공'을 뜻하는 태국어 'Takraw'가 합쳐진 합성어다. 이름처럼 선수들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작은 공을 넘기며 승부를 겨루게 된다. 국내에서는 축구 등에 비해 생소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대표적인 인기 스포츠다. 신추광(대구광역시청) 플레이코치는 "국내 인지도는 축구에 비해 떨어지지만, 협회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경기 규칙은 공이 코트에 바운드 되지 않고 3번 안에 공을 상대편 코트로 넘기면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다. 또한 연속해서 두 번 이상의 터치가 불가한 배구, 축구와 달리 한 선수가 연속 3번의 터치를 할 수 있다. 세팍타크로의 경기 방법은 경기 인원에 따라 ▲더블 ▲레구 ▲쿼드로 나뉜다. 한 팀에서 2명이 출전하면 더블, 3명이 출전하면 레구, 마지막으로 4명이 출전하면



사진 출처: 대한스쿼시연맹

▲공에 시선을 집중하는 스쿼시 선수

쿼드이다. 신 플레이코치는 "레구는 코트 안에 위치한 원에서 서브를 시작하지만, 더블과 쿼드는 코트 밖에서 서브를 넣는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스파이크와 오버헤드킥 등의 아크로바틱함은 세팍타크로의 큰 매력이다. 다양한 동작을 사용해 공중에서 강력한 스파이크로 공격하고, 이를 막고자 네트 앞에서 동시에 상대편 선수들이 공중으로 뜨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또한 네트 스포츠인 만큼 심리전도 돋보인다. 강력한 공격을 하는 대신 네트 앞에 살짝 공을 떨어뜨리는 등의 방식이다. 남윤찬(대한세팍타크로협회) 사원은 "공격수 역할을 하는 '킬러'가 공격을 통해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감탄사가 나온다. 킬러가 완전히 몸을 뒤집어서 공을 차는 '롤링 스파이크' 등 공중 발차기의 기술이 화려하다"고 말했다.

세팍타크로는 스포츠로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신 플레이코치는 "세팍타크로는 현재 엘리트 체육을 중심으로만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남 사원은 "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인지도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7월 태국에서 열리는 '2023 킹스컵 세계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와 8월 '제34회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등 대회를 통해 경기를 접해 보라"고 권했다.

사방이 막힌 곳에서, 스쿼시

'공을 일그러뜨리다'라는 뜻을 가진 '스쿼시(Squash)'는 투명한 유리 혹은 아크릴, 패넬로 사방이 막힌 직육면체 경기장에서 라켓으로 공을 쳐 내는 종목이다. 테니스와 매우 유사하지만, 네트가 없는 스쿼시는 천장을 제외한 5개의 면을 이용해 경기한다. 김창우(대한스쿼시연맹) 상임심판은 "규칙을 알고 접하게 되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며 "배우기에도 테니스에 비해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밝혔다.

먼저 스쿼시에서는 정면의 벽, '프런트 월(Front wall)'을 무조건 맞춰야 한다. 선수가 친 공이 프런트 월을 맞추지 못하면 실점으로 이어진다. 또한 바닥을 제외한 4개의 면에 그려진 아웃라인 안으로 공을 넣어야 하며, 이때 원 바운드 이상 이어지면 그것 또한 득점과 실점으로 연결된다. 배구나 탁구처럼 특정한 선수는 서브도 같이 가져가

제35회 회장배 전국우슈선수권대회 2023년 국가대표선발



사진 출처: 대한우슈협회

▲권법을 선보이는 우슈 선수

게 된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렛(Let)'과 '스트로크(Storke)'라는 규칙이 존재한다. 한 선수가 다른 선수를 방해했을 때 고의성이 없다면 무효 처리인 렛, 고의성이 있다면 스트로크가 선언돼 점수와 서브권을 상대 선수에게 넘겨지게 된다.

스쿼시 경기에서의 핵심은 'T-zone'을 사수하려는 선수들의 움직임이다. T-zone은 스쿼시 경기장의 정중앙 지역으로, 이곳을 장악한다면 공이 어느 곳으로 오든 빠르게 움직여 대응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선수들은 공을 치고 빠르게 T-zone으로 돌아오고, 상대 선수를 T-zone에서 떨어뜨리려고 샷을 구석으로 보낸다. 김도균(대한스쿼시연맹) 사원은 "선수들은 다양한 형태와 위치의 공을 처리하기 위해 경기 중 기본적으로 정중앙인 T-zone을 사수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경쾌한 공의 파열음, 예리한 각도의 샷과 속도를 죽여 벽에 딱 붙이는 다양한 기술, 다이내믹하고 화려한 움직임 등이 관련 요소"라고 전했다.

최근 대학을 중심으로 스쿼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상관없고, 좁은 공간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만큼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사원은 "스쿼시 동호인 클럽은 전국적으로 430여 개가 있고, 전년 대비 40곳 정도 증가했다"며 "스쿼시장에 찾아가 감수 받아보라"고 추천했다. 이어 김 상임심판은 "대학교에 스쿼시 코트가 많이 만들어지는 추세다. 혼자서도 할 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스포츠"라고 덧붙였다.

투기와 예술의 무술, 우슈

'우슈(Wushu)'는 중국의 전통 무술로, '1990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내 종목으로 꾸준히 채택되고 있다. 우슈라는 명칭 자체도 무술의 중국어 발음이다. 무협영화에서 봤던 결투 장면을 생각하면 우슈를 떠올릴 수 있다.

우슈는 '산타'와 '투로'로 나뉜다. 산타는 격투기의 일종으로, 태권도의 겨루기와 비슷하다. 다만 발차기가 주를 이루는 겨루기와 달리 우슈는 주먹을 이용한 타격 또한 활발하며, 상대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타' 또한 존재한다. 투로는 태권도의 품새와 비슷하다. 투로는 ▲장권 ▲남권 ▲태극권 등이 존재한다. 북방무술인 장권, 남방무술인 남권과 양생술로 잘 알려진 태극권이 있다. 선수들은 각 권법에 맞춰 무술을 구사하게 된다. 더불어 무기를 사용하는 병기술도 존재한다. 박기순(영산대학교 동양무예학과) 교수는 "장권은 동작이 크고 화려하면서도 난도가 높은 점프나 도약이 있다. 남권은 하반신을 많이 쓰며, 상당히 남성적인 특



사진 출처: 대한산악연맹

▲클라이밍 경기장을 오르고 있는 두 선수

징을 내포하고 있다. 태극권은 부드러운 움직임이 많다"고 설명했다.

격투기와 표현 무술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우슈의 매력이다. 박찬대(호원대학교 스포츠무도학과) 교수는 "상대방하고 겨루는 걸 좋아한다면 산타를 주로 시청하면 되고 멋진 동작들에 환상이 있다면 투로를 주목해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우슈가 생활 스포츠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박찬대 교수는 "우슈를 비롯한 무술을 통해 정신적인 수양과 더불어 순발력, 근지구력 등을 기를 수 있다"며 "경기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호에 따라 종목을 골라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기순 교수는 "현재는 가까운 우슈 체육관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상을 지배하다, 클라이밍

'클라이밍(Climbing)'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실내외의 암벽을 등반하는 스포츠다. 지난 '2020 도쿄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클라이밍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이어 다음 올림픽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재준(대한산악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은 "자연 암벽에서 시작해 현대인들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클라이밍을 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면서 스포츠의 길을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방식으로는 ▲스피드 ▲리드 ▲볼더링이 존재한다. 먼저 스피드는 가장 빠르게 15m 높이의 암벽을 오르는 종목이다. 긴 박하게 초를 다루는 경기로, 정해진 규격의 경기장이 존재한다. 리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제한 시간 안에 15m 높이의 암벽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선수가 승리하는 종목이다. 또한 볼더링은 별도의 안전 장비 착용 없이 4~5m 정도로 낮은 높이의 암벽을 완등하는 방식이다. 대신 난이도가 존재하기에 암벽의 구성을 파악해 클라이밍을 시도해야 한다. 클라이밍하는 것을 '문제를 푼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유다.

클라이밍은 전신을 사용하는 종목으로 '삼지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몸의 무게 중심을 위해 선수의 두 손과 발 혹은 두 발과 한 손이 항상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것이다. 이 위원은 "기본적으로 손의 힘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근육이 사용되는 운동이다. 근력, 순발력, 심폐 지구력 등의 운동능력을 전체적으로 요구하기에 눈에 띄는 근력 증가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생활 스포츠로서도 많이 즐기는 만큼 주위에서 클라이밍장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클라이밍장에서 감습을 받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 위원은 "연령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중학교에서도 생활 스포츠로 배우고 있는 만큼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